



가을 이사철 ... 전셋집 구입 요령

은행 금리인상 폭

예금 > 대출

가격 상승폭 상대적으로 낮은 곳 선택

3개월 내림세 뒤 미미한 오름세 등기부등본에 근거당 등 확인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아파트시장에서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등 주택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12월 부동산장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3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던 광주·전남 아파트 전세가가 9월들어 각각 0.03%, 0.01% 상승하는 등 회복세를 돌아섰다.

이처럼 전세가가 소폭 상승한 것은 가을 이사철과 신혼 수요가 맞물리면서 전세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 곳에 입주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것은 금물이다. '굴뚝 돈'을 남겨둬야 내집 마련으로 가기 위한 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려해야 한다. <입지와 교통여건 등 고려해야> 가능하다면 입지와 교통여건이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 입지는 출퇴근에 유리한 곳일수록 좋고,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도 편해야 한다.

명의와 전세 계약할 상대방의 명의가 같은 지를 살펴봐야 하며 근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도 따져 봐야 한다.

내년 경제 성장률 4.3% 경상수지 45억달러 적자

삼성경제연 "10년만의 적자 예상"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3%로 낮아지고 경상수지가 45억달러 적자를 기록, 지난 1997년 85억달러 적자 이후 10년만에 적자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수출 증가율은 5년만에 한 자리수인 8.3%로 떨어지고 민간소비, 고정투자 증가율도 각각 3.7%, 2.9%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5월 발표한 하반기 전망과 비교해 성장률은 큰 차이가 없으나 경상수지 적자는 23억달러에서 8억달러 더 축소됐다. 이렇게 해 내년 경상수지가 적자로 떨어질 경우 지난 1997년 85억달러 적자 이후 10년만에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공공용지' 사는 땅 줄고 보상액 늘었다

작년 손실보상액 15조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많이 올라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땅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보상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17만평)은 11.9%가 감소한 반면 보상액은 7.7%가 증가한 것이다. 2003년 공공용지 취득 면적이 4천746만평, 보상액이 8조3천461억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불과 2년만에 보상액이 배 가까이 늘어났다.

년전보다 중앙 행정기관의 보상액은 18.5% 줄었지만 지자체는 오히려 76% 늘었다. 전체 사업별 보상액은 주택 및 택지가 7조1천39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3조1천763억원, 공업·산업단지 1조1천906억원 등 순이다.



바자회 경매장에 나온 푸우

메이크어위시재단이 12일 강남 푸르멘셜 타워에서 난치병 어린이 소원성취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자금 모집 바자회를 열고 있다. 이날 바자회 경매장에는 월드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에서 기증한 푸우 인형들이 선보여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이닉스, 前 경영진 상대 820억원대 손해소 제기

"비자금 조성으로 손해"

하이닉스반도체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전 경영진 등을 상대로 82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1992~2001년 10월 대표이사 회장이었던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과 전 경영진들이 재직시 비자금 조성과 횡령,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 전 회장의 상속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8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년 9월부터 2000년10월까지 외국으로부터 원·부자재나 외화를 매입하지 않았으나 매입한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회사에 290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하이닉스는 "피고들은 1998년 9월부터 1999년 5월까지 원고의 위장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해도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않고 부당지원해 312억여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기업어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한라건설을 부당지원해 218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로밍폰 나왔다

삼성전자·SKT '월드폰' 출시 90개국 이동통신 서비스 가능

휴대전화 하나로 같은 번호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이동통신 시대가 열렸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12일 국내 방식인 CDMA와 유럽식 이동통신 방식인 GSM, 일본의 이동통신 방식인 JCDMA를 모두 지원해 전 세계 90여개국에서 자동로밍이 가능한 월드폰(모델명 : SCH-V920)을 1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 10곳 중 6곳

임사원서 토익점수 제한 안해

상당수의 외국계 기업은 임사원서 접수시 토익점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포털 잡코리아는 외국계 기업 141개를 대상으로 임사원서 접수시 토익점수를 제한하는 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58.2%가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토익점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0.5%에 그쳤으며, 나머지 11.3%는 '채용하는 직무에 따라 유동적이다'고 밝혔다.

창업 실패 원인 '준비부족'

중소중량회 조사, 29.5% 차지

창업자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주요 원인은 준비부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중소기업중량회 조사공인 전문컨설턴트 197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실패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29.5%가 '철저한 준비부족'을 꼽았다. 그 다음은 '경영자의 경영마인드 부족(24.4%)', '사업아이템 선정 실패(12.7%)', '입지선정 실패(11.2%)' 등의 순이었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Company Name, Job Position, Salary/Qualification, Start Date, and Contact Info. Includes companies like Hanbit Media, Shinil Industrial, etc.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